

도전과 혁신으로 '더 큰 영암' 향해 전진

민선 8기 3년

우승희 영암군수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비전으로 출범한 민선 8기 전남 영암군이 오는 7월 출범 3주년을 맞는다. 영암군은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낡은 것은 새롭게, 어두운 곳은 밝게 만드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후반기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첫 삽을 뜨는 영암공공도서관은 국내 최초로 기후·생태환경 특화 도서관을 표방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문화예술회관, 현충공원 등 주요 공공·문화시설이 영타운 중심지에 들어서며 문화·주거·편의가 결합된 복합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군은 특히 영암 교동리에 조성될 각종 시설들이 지역 주민은 물론 외부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인 정주 기반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는 ‘호남명촌 구립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 전남형 균형발전 300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본격 추진된다. 한때 호남 3대 명촌으로 불렸던 구립마을의 위상을 회복하고, 전통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남도 문화 중심지로 되살리는 것이 핵심이다.

민선시대 대표 성과로 꼽히는 마한역

호남명촌 구립 프로젝트 추진 전통 남도 문화 중심지 도약

사문화센터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삼호읍 나불리 일원 2만9478㎡ 부지에 국비 327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6259㎡ 규모로 조성된다. 기록보관소, 문화재 전문 도서관, 교육·연구시설, 전시·체험관 등을 갖춘 종합문화공간으로, 올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6년 착공될 예정이다.

민선 8기 공약 이행 성과도 두드러진다. 총 10개 분야 120개 공약으로 구성된 영암군의 정책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했다. 이로써 영암군은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하며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

시니어클럽 설치, 노인일자리 확대, 영암천 자전거도로 조성, 농기계 임대기증 확대 등 36개 공약은 이미 완료됐고, 84개는 현재 추진 중이다. 2024년 기준 공약 이행률은 68%로, 전국 군 단위 평균(4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우승희 영암군수.

영암군의 농정 혁신 기조는 ‘농가소득 증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쌀·무화과·대봉감·한우 등 대표 농특산물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를 위한 생산·품질관리·유통을 연계한 체계를 정립해가고 있다.

군은 2024년을 ‘농정대전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농정혁신 한마당대회’를 통해 4대 분야 19개 전략, 62개 핵심사업으로 구성된 ‘영암형 농정대전환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고령화와 인력난을 고려한 농촌 인력

대책도 발빠르게 마련 중이다. 청년농업인에겐 최대 360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청년경영실습농장 운영, 멘토-멘티 매칭 등을 통해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년간 1000명 규모로 대폭 확대됐으며, 55억원을 투입해 기숙사를 신축하고 공공형 인력중개센터도 운영 중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지역순환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조직 발굴·육성과 기반 조성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생태계 구축과 순환경제 과제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인 ‘영암사랑상품권’은 ‘월출페이’ 앱 도입을 통해 지역 경제 순환의 중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이 앱은 가맹점 간 QR 결제를 통한 소비-재사용-캐시백 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소비자는 결제하고, 소상공인은 받은 금액으로 다시 다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10% 캐시백이 제공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난 3년간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늘 현장을 보고, 군민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의로운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3년 전 초심을 잊지 않고, 영암군의 대표 얼굴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교진 기자

진도군, 홍역 유료 예방접종 오늘부터 진행...비용 1만5000원

전라남도 진도군은 30일부터 홍역(MMR) 유료 예방접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발진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감수성이 있는 사람 중 90% 이상이 감염될 정도로 전파력이 높다.

증상으로는 고열, 기침, 결막염, 홍반성 발진, 구진 등 복합적인 전신 증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홍역 예방 접종률이 낮아지고 국외 교류가 증가하면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홍역 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도군에서는 생활 인구를 포함해 군민 중 홍역 유행 국가 여행(또는 방문) 예정자와 홍역 면역력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홍역(MMR) 백신 유료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1회 접종 비용은 1만5000원이다.

접종 대상자는 해외 출국 전에 홍역 예방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4~6주 전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홍역 백신 접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 보건소 예방접종팀(061-540-604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진도-백재현 기자

완도군, 치유 페이지 사용·혜택 확대 동반인 카드 영수증 증빙 적용

전라남도 완도군이 ‘완도 치유 페이지’를 관광객들이 더 쉽게 이용하고 혜택을 더 넉넉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29일 완도군에 따르면 치유 페이지는 2인 이상의 관광객이 관광지를 방문해 소비한 금액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원 상당의 쿠폰 또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다.

기존에는 신청자 본인 1개 카드의 영수증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신청자 또는 동반인 카드 영수증도 증빙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특히 보길, 청산도 등 7개 섬 지역 1곳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증빙할 경우 1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관광객 발길을 전 지역으로 유도하고 균형 있는 관광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 소상공인 업종 중심의 소비로 직결돼 골목 상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게 완도군의 설명이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완도치유페이지를 통해 23억8970만원의 소비가 발생했으며 이 중 18억6750만원이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됐다. 총 소비 금액은 3월 2억6000만원에서 5월 12억6000만원으로 약 4.7배 증가했다.여행 경비 지원 신청 역시 870팀에서 3577팀으로 4배 이상 증가하며 ‘완도 치유 페이지’ 참여도도 높았다.

관광객 소비 분석 결과, 식당에서 7억9000만원, 특산물 매장에서 5억8000만원, 숙박에서 4억3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소비로 연결되는 체류형 관광’으로 정책 방향을 정립한 결과다.본 사업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실질적 효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관광객이 만족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관광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오픈 4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신안1004몰, 최대 44% 할인

전라남도 신안군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신안1004몰’에서 오픈 4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4주년 기획전은 오는 7월13일까지 열리고 최대 44~24% 할인쿠폰을 제공해 고객별 최대 3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숫자‘4’를 테마로 한 ‘4대 천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가장 많이 구매한 고객 ‘구매왕’, 가장 많은 리뷰를 작성한 ‘리뷰왕’, 매일 4일 연속 출석 체크하는 ‘출석왕’, 지인을 초대한 ‘추천왕’ 등 4개 부문에서 선정된 고객에게는 최대 4만원의 적립금이 주어진다.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즉시 사용 가능한 적립금 4000원이 지급된다.

신안-홍일갑 기자

신규 답례품 12종 추가 선정 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

전라남도 목포시는 지난 25일 개최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2025년 목포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공급업체 및 답례품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기부자에게 경쟁력 있고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특히 목포의 강점인 수산물을 비롯해 축산물, 베이커리, 관광입장권, 기념품 등 다양한 답례품이 추가 선정됐다.

신규 답례품은 △목포지주식김세트 △훈제민어슬라이스, 민어초리조△돈육구이세트, 실속한우세트 △무지개까래, 소금빵 △목포무인형키링 △목포마그넷 6종, 가족명함지갑 △목포플레이파크 입장권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입장권으로 총 8개 업체, 12개 제품이다. 7월 중으로 기존 답례품을 포함해 총 65개 업체, 97개 제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돼 목포 고향사랑 기부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지난 28일 열린 ‘제17회 황토골 무안 전국요리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무안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제17회 황토골 전국요리 경연대회’ 성황

전라남도 무안군이 지난 28일 제28회 무안연꽃축제 주무대에서 ‘제17회 황토골 무안 전국요리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9일 무안군에 따르면 대회는 ‘무안, 아시아의 웰빙을 담다’라는 주제로 무안 농산물을 활용한 2종의 브런치 세트(다국적 샐러드 포함)를 개발해 경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순한 조리 대결을 넘어 요리에 담긴 스토리텔링과 지역성을 함께 보여주는 ‘라이브 오디션형’으로 진행해 차별화된 무대를 선보였다.

전국 각지에서 50여개 팀이 지원한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20개 팀은 현장에서 직접 조리 시연을 펼쳤다.

심사는 조리 정확도, 맛, 대중성, 창의성, 위생 등 총 12개 항목에 걸쳐 공정하게 진행됐다.

대상은 김리오·이한빈 팀의 ‘칠계비스크 해산물 불오방과 연자육 후무스’가 차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설민준·장명하 팀의 ‘무안 황토 고구마 와플과 무안 갈릭버터 잠봉 비르&무안 특산물 K-브런치 플레이트’가 받아 전라남도지사상과 상금 100만원이 주어졌다.

이밖에 우수상 2팀, 장려상 16팀 등 총 20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사 당일에는 경연대회 외에도 양파떡, 무안양파크림수프, 냉면근차, 양파셀

러드빵 등 다양한 시식 코너가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무안 농산물의 색다를 매력을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대회 수상작을 관내 외식업소와 연계해 실용화하는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 농산물을 ‘브런치 메뉴’로의 활용 가능성과 소비자 친화적 레시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황토골 무안 전국요리경연대회는 단순한 요리 대회를 넘어, 지역 농산물이 실제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온 의미 있는 행사다”며 “앞으로도 축제와 연계한 먹거리 콘텐츠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 지역 농업과 외식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